

# 石洲 權鞞小論

蘇 在 英\*

1. 序 言
2. 家系上으로 본 石洲
3. 氣質上으로 본 石洲
4. 宮柳詩와 石洲의 生涯
5. 石洲와 그의 小說
  - (1) 石洲가 만난 周生
  - (2) 周生傳의 背景
  - (3) 周生傳의 悲劇性
6. 結 語

## 1. 序 言

필자는 우리 小說史에서 아직도 올바른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는 作家로 石州 權鞞 白湖 林梯 河濱 愼後聃 등을 注視해 왔다. 그 一次的 試圖로 「白湖林梯研究」<sup>1)</sup>라는 글에서 林梯의 小說家로서의 위치를 確認해 보았거니와 그 二次的 作業의 對象으로 石洲 權鞞을 擇하였다. 林梯나 權鞞 역시 그들의 作品이 모두 漢文으로 되어 있어 作家論이나 作品論의 立場에서 지금까지 疏忽하게 다루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表現의 媒體가 漢文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文學史에서 빛나는 功績을 남긴 이들 作家의 業績을 결코 事實 이하로 貶下할 수는 없다. 石洲 權鞞은 분명히 現在 이상으로 再評價받아야 할 偉大한 作家의 한 사람이다. 이를 위하여 論者は 몇 가지 項目으로 나누어 評價의 基準을 삼으려 한다.

먼저 家系上으로 보아 石洲의 成長 過程을 살피고 그의 家庭的 狀況을 檢討하는 것이 順序이겠다. 둘째로는 그의 氣質과 文名이 어떠한가를 檢討해야 한다. 氣質은 多分히 家系에 이어지는 先天的인 것이며 文名은 곧 作家로서의 評價의 尺度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그의 生涯를 가름하는 所謂 宮柳詩에 얽힌 그의 行跡을 더듬어 봄으로써 作家 權鞞의 精神的인 面貌를 살펴 보려 한다.

\* 文理科大學(大田) 國文科 助教授

1) 拙稿: 「白湖 林梯研究」(民族文化研究 8輯) 1974

다음엔 作品論의 차례다. 石洲集을 中心하여 그의 作品 全般을 檢討하여야 作家로서의 올바른 評價가 이루어지겠으나, 本論에선 그의 代表的 小說 周生傳을 通하여 作者인 石洲의 面貌가 어떻게 作品을 通하여 나타났는가를 分析해 보려 한다.

周生傳은 史的으로 金鰲新話와 洪吉童傳을 잇는 교량적 작품이며 그 構成의 特質로 보아 艷情類의 標本이 될만하다. 特히 假托法에서 비롯되는 小說 構成의 形式的인 諸問題뿐 아니라 일찌기 言及이 없었던 周生傳의 悲劇的 本質性이 밝혀지면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 있는 雲英傳<sup>2)</sup>과 더불어 우리 小說史의 비극적 系脈을 밝히는 重要的 契機를 提供해 주리라 確信한다.

끝으로 周生傳이 지닌 몇 가지 原型的 媒介를 들어 作家精神이 作家와 作品을 잇는 精神的 面貌를 밝혀봄으로써 兩者의 相關性을 測定하는 契機를 삼는데 이바지코자 한다.

## 2. 家系上으로 본 石洲

權韡는 號를 石洲, 字를 汝章이라 하며 宣祖 2年(1569年) 玄石村(麻浦 西江)에서 태어나 光海 4年(1612年) 43歲를 一期로 非命에 客死하기까지 波瀾萬丈의 生涯를 살았다. 그의 家系인 安東權氏는 麗初 三重大匡太師인 權幸을 宗祖로 하는데 韡에겐 22代祖가 된다. 원래는 新羅宗 姓 慶州金氏이던 바 고려가 後百濟軍을 무찌르는데 가담하여 功을 세워 太祖로부터 權姓을 下賜받고 幸은 大相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韡의 10代祖 溥는 贊成事 昞의 아들로 永嘉君으로 封함 받았는데 安珣의 門人이었다. 7代祖되는 陽村 權近은 檢校 政丞 僖의 아들로 李穡의 門人인 바 性理學에 造詣가 깊고 文章에도 能하여 李太祖 開國 후 忠州의 陽村 謫地에서 召喚되어 大提學을 지냈다. 著述로는 陽村集 외에 易詩書 春秋淺見錄 禮記淺見錄 東國史略 五經口訣 등이 있는데, 특히 그의 入學圖說은 후일 李滉 張顯光 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性理學者 이면서도 文學을 尊重하여 詩賦 詞章의 學을 實用面에서 重視 獎勵하여 經學과 文學의 兩面을 調和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더 가까이는 韡의 祖父되는 祺가 있는데 그는 文科에 登第하여 左承旨 慶州府尹을 지낸, 性稟이 剛直하고 誠實한 文章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韡의 父親 擘은 字를 大手 號를 習齋라고 하는데 일찌기 文臣庭試에 登第하여 李珣의 次子로 史官에 起用,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등의 편찬에 參與하고 明神宗 등극 시에 勅使로 明나라를 來往하였다. 習齋集 3冊이 전하는데 그의 墓碣銘에 의하면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못이을 程度였으나 子弟들이 책을 끼고 請學해 오면 기쁜 마음으로 講說에 熱中하였으며 글을 읽고 가르칠 때에는 이른 새벽에도 冠帶하고 正座하여 終日 婦女子를 接近시키지 않았으며 功利的 榮達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2) 拙稿: 「雲英傳 研究」(亞細亞研究 通卷 41號) 1971

家屢空 妻子不免飢寒 而處之泊然 子弟挾冊請學 輒喜于色 講說甚辨 即不學亦不問 其律已極嚴 晨興冠帶 正座書室 終日婦女 不敢近 至老不少懈…其視榮辱窮達 不啻如浮雲<sup>3)</sup>

宣祖實錄에는 擘의 性稟을 評하여

權擘天性透疎 只以文辭 不棄於世<sup>4)</sup>

라 하였고, 永嘉世牒을 보면 宣祖大王이 擘의 人稟을 묻자 左相 盧守愼은 <性稟이 淸儉하고 文章이 卓越하다>고 하였고 右相 鄭惟吉은 <守靜好讀하여 不喜交遊하다>고 하여 宣祖의 關心을 사 드디어 拔擢 起用되었다고 하였다.

習齋 擘은 慶州 鄭氏와 結婚하여 七男妹를 두었다. 韓 韜 韞 韜 韞의 여섯 아들과 李晟(字 景明)의 夫人이 된 딸이 있다.

石洲 擘은 六男 중 다섯째였지만 이처럼 家庭教育이 嚴한 家門에서 儒家的인 教育뿐 아니라 여러 兄弟들과 함께 徹底한 精神教育을 받고 자라났다.

石洲集을 보면 長兄 擘는

少敏於學 既長病酒 廢學子業 居家不治生產 少交遊 左右書史蕭然也<sup>5)</sup>

라고 하여 酒病으로 科擧도 포기하고 외롭게 지냈으며 둘째 韜와 셋째 韞은 松江 鄭澈의 門人으로 많은 詩文을 남겼으며 넷째 韞은 性稟이 더욱 剛直하여 司馬兩試에 合格했으나 光海君이 仁穆大妃를 西宮에 幽閉했다는 消息을 듣고는 벼슬을 버리고 海州에 寓居하면서 世態를 恨하는 많은 作品들을 남기고 있다(草樓集). 그는 아우인 擘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執權黨인 大北 一黨이 江가에서 船遊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非行을 꾸짖다가 被禍한 事實은 너무나 有名하다. 石洲 擘의 唯一한 아우 韞도 文章에 能하여 일찍 科擧에 登第하였으나 兄인 擘이 被禍하게 되자 세번이나 謫地로 流配된 바 있다. 燃藜室記述에는 擘의 아우 韞가 罪를 입고 海南으로 귀양갈 적에 지은 詩에

臣罪如山死亦甘 聖恩寬貸謫江南 臨歧別有無窮恨 慈母時年八十三<sup>6)</sup>

이라 읊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擘이 세상을 떠나고 그 餘禍로 海南에 流配되어 가면서 83歲의 老母를 근심하는 애담은 그의 衷心이 서려 있다.

石洲 擘은 일찍 그의 叔父인 成均生員 擘이 無後하여 養子로 入籍되었다. 養母는 延安 金氏 禕의 딸이었다. 그는 養父母를 섬기는데 매우 극진하였으며 병환이 들면 그 곁을 잠시도

3) 「習齋權公擘之墓碣銘 并序」 인용

4) 「宣祖實錄」18年 乙酉 4月戊午條 인용

5) 「石洲集」伯氏行狀 인용

6) 「燃藜室記述」19卷 擘弟韞亦被罪海南 臨行有詩云.

떠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先生內行甚篤 幼而習齋命 出爲叔父擎後 事所後母金氏 極誠敬 有疾未嘗離側 其意未嘗少違 推此以往 其他可知已<sup>7)</sup>

韡은 洪州 宋氏 齊民의 女를 맞아 아내로 삼고 아들 侂을 낳았는데(祭宋聘君文) 石洲集의 <倩婦呼詩韻> <室人勸我一酒詩以答之> 등을 보면 宋氏夫人은 詩文에도 相當한 造詣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그 家系를 살펴보면 石洲 韡은 祖上적부터 文名이 높은 家門에서 태어나 嚴한 家庭教育을 받고 자라났으며 특히 貧窮한 家勢 속에서 父親 擘의 精神의 影響力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氣質이 곧아 當代의 政治의 不條理와 矛盾을 默過할 수 없어 諷刺와 抵抗으로 살다 非運에 갔지만 家系上으로 보면 孝誠이 敦篤하며 兄弟의 友愛가 극진하였을 뿐더러 文學的인 자취를 더듬어 보면 한편 浪漫과 情感에 듬뿍 찬 爲人이기도 하였다.

### 3. 氣質上으로 본 石洲

石洲 韡은 爲人이 疎亢不羈하였다고 한다. 젊어서 松江 鄭澈의 風流를 사모하여 松江이 江界로 귀양갈 때 東岳 李安訥과 함께 그를 만나니

此行 得見天上二謫仙<sup>8)</sup>

이라 하여 기뻐하더라는 것이다. 그가 21歲時에 壬辰倭亂이 일어나 宣祖大王이 義州 龍灣으로 蒙塵하게 되었는데 權韡이 具容과 함께 上疏하고 그 責任을 물어 李山海 柳成龍을 處斷하라고 極力 主張하였으나 容納되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던 後로는 自身도 世上에 구차스럽게 苟全치 못할 것을 알았고, 더우기 松江이 世상을 떠난 뒤로는 그가 罪名 입는 것을 더욱 가슴 아프게 여겨 다시는 科擧에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sup>9)</sup> <尤痛澈至死後獲罪 遂不復應擧>의 이 衝擊은 필자가 白湖林梯論에서 白湖가 그 스승인 大谷 成運의 生涯에서 충격을 받아 作品 속에서까지 東西朋黨을 멀리한 事實과 相通한다.<sup>10)</sup>

그는 天性이 危言 激論을 좋아하였다. 따라서 그의 詩 가운데는 時政을 譏刺한 作品들이 많은데 이러한 性格으로 하여 그는 일찌기 죽음을 自招케 한 것이다.

7) 「石洲墓碣銘」 인용

8) 安鍾和「國朝人物志」所引

9) 石洲集에는 松江을 사모하는 다음과 같은 詩가 傳한다. 「空山木落雨蕭蕭 相國風流此寂寥 惆悵一盃難更進 昔年歌曲即今朝」(公嘗有短歌道 死後誰勸一盃酒之意)

10) 「早脫世網 其兄遇遭乙巳之亂 死於非命自此益無意於時名 遷居報恩俗離山下」(大東野乘 象村雜錄). 「去河北賊易 去朝廷朋黨難 讀史至此 未嘗不捲卷嘆也 謂之黨禍酷於逆亂則可 謂之破黨難於制賊 豈其可也」(花史) 참고.

## 權輶의 氣質을 仁祖實錄에서 보면

爲人倜儻不羈 言論爽豁 力學能文尤工於詩<sup>11)</sup>

라 하여 사람됨이 구속되지 아니하고 말함이 거침없으며 특히 詩文에 能하였다고 한다. 그의 墓碣에서 보면 宇宙를 덮을 듯한 意志 眼下無人的 眼目, 富貴를 마음에 두지 않고 詩酒에 自誤하는 그의 性稟을 잘 보여주고 있다.

其爲人 跌宕豪放 志蓋宇宙 眼空一世 凡世之富貴榮利 紛華盛麗 人所艷慕歆願者 一無所入於其心 惟以詩酒自誤 嘗一再入場屋 後不屑也<sup>12)</sup>

谿谷 張維는 그의 石洲集 序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余生後 公幾二十年 弱冠 幸得從公游爲人 廣頰哆口 疎眉目 貌偉而氣豪 言論磊落動人間 雜談謔 性 嗜嗜酒 酒後語益放 傲睨吟嘯 風神散朗 即不待操紙落筆 而凡形於口吻 動於眉睫 無非詩也者 及其章 成也 情境妥適律呂諧協 蓋無往而非天機之流動也<sup>13)</sup>

이 글에서 보면 谿谷은 石洲와 20년이란 年齡의 차이가 있지만 石洲와의 交遊를 多幸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그 偉大한 風貌와 豪傑스런 氣運에서요, 둘째는 磊落한 言論, 셋째는 술을 즐기면서도 豪宕不羈한 그의 性癖, 넷째는 詩文을 지을 때의 嘖[오난 숨소리]로 해서다. 輶은 天稟이 매우 高尚하고 內行이 매우 謹飾하였으므로 濂洛諸書를 읽을 적인 見解가 通明하여 비록 老師 宿儒라도 그를 당할 者 없었다고 谿谷은 證言하고 있다. 輶은 그의 義를 成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爲人이었다. 그는 自身과 그 家族들의 困窮을 覺悟하면서까지 自身이 지킬 길이 무엇인가를 分明히 할 줄 알았다.

汝章早拋舉子業 除官皆不就 寓居湖上 家貧妻子恒有飢色 而人或勸之仕 哦詩若不聞樂弛 置自放於人少許 可跡不到達官<sup>14)</sup>

許筠은 그의 文集 槿所覆瓿藁 가운데서, 不遇한 現實을 딛고 곳곳하게 意志를 지켜 나가는 文章家 5人을 드는 가운데 權輶 李安訥 趙緯韓 許禱 李再榮의 首位에 石洲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權輶汝章 李安訥子敏 趙緯韓持世 而余再從兄 許禱子賀 暨少時昵友 李再榮汝仁 五人者 文章俱係世 而窮於時亦同 豈文人結習例厄於命也歟<sup>15)</sup>

11) 「仁祖實錄」 仁祖元年 4月庚午條 인용

12) 「石洲墓碣銘」 인용

13) 張維「石洲集」序(崇禎壬申春日 德水張維 謹序)

14) 李廷龜「石洲集」序(崇禎壬申孟春 月沙 李廷龜 聖微甫)

15) 許筠「槿所覆瓿藁」卷2 前五子詩序

그중에서도 東岳 李安訥은 石洲 權輶과 가장 交分이 두터운 文友였지만 文章도 그 優劣을 難分할 程度였다.

權之空山落木雨蕭蕭 李之江頭誰唱美人詞 皆爲鄭松江作 而俱是絕響 世不敢輕重 蓋權之首句 有如 雍門琴聲 忽然驚耳 使人無不零涕 李之末句 有如赤壁籠音 不絕如縷猶含無限意思 雖難優劣 然格調則 權勝<sup>16)</sup>

壺谷의 이 글은 鄭松江을 두고 지은 두 詩를 評한 詩論인데 格調에 있어서 東岳의 文章보다 石洲의 文章이 훨씬 勝하다고 하였다.

洪萬宗의 旬五志에도 石洲의 詩와 氣質을 읊은 逸話 한 토막을 記述하고 있다. 石洲 輶이 어느날 鄉村을 지나다가 우연히 비를 避하여 한 座首家에 들어갔다. 마침 집에선 鄉士 5·6人이 賦詩 會飲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檻褻한 石洲를 보자 詩를 아느냐고 물었다. 石洲가 모른다고 겸손하게 對答하자 그들은 제각기 自己의 詩가 李太白과 杜甫의 詩도 따를 수 없으며 너무 格調가 높아 바람에 꺾일까 걱정이 된다면서 법석을 떨었다. 그때 石洲는 乞酒 한잔을 받아 마시고 다음과 같은 詩를 읊었다.

書劔年來兩不成 非文非武一狂生 他時若到京城間 酒肆兒童盡誦名<sup>17)</sup>

文도 武도 成功치 못한 一狂生이라 했으나 서울에 가서 물으면 酒幕집 아희도 내 이름을 안다는 轉結句에 座中은 깜짝 놀라 그의 姓名을 되물어 名文章家 石洲임을 確認하자 그를 上座에 새로 모시고 勸酒를 각듯이 하였다고 전한다.

噫 自古賢人達士 潛光玩世者 多矣 莫有辨於 驢黃牝牡之間 其不爲鄉生之待兩公者幾希矣<sup>18)</sup>

이 글의 兩公은 林白湖와 權石洲다. 비맞은 초라한 선비가 石洲임을 알고 당혹하는 鄉生들의 逸話에서 우리는 石洲의 人間的 斷面을 익히 살필 수가 있다.

石洲 輶은 宣祖 34年 明使 顧天峻이 朝鮮에 왔을 때 遠接使인 月沙 李廷龜의 추천으로 白衣從事로 製述官이 되어 參詣하였다. 그리고 다시 童蒙敎官으로 除受되어 東帶하고 禮部에 參詣하라 하니 <此非吾所能也>라 사양하고 즉시 辭官해버린 事實이 그의 能力과 分數를 지킬 줄 아는 爲人임을 말해 주고 있다.

16) 南龍翼 「壺谷詩話」 引用.

17) 洪萬宗 「旬五志」卷上.

18) 洪萬宗 「上揭書」卷上 權石洲輶條

## 4. 宮柳詩와 石洲의 生涯

辛亥年에 進仕 任叔英이 策問試에서 時政을 諷論하여 말썽을 빚은 적이 있다. 그때 試驗官들은 이 事實을 두려워하여 試紙를 敢히 버리지 못하였는데, 그때 光海君이 이 글을 親히 보고 大怒하여 榜에서 叔英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命令하게 되었다. 그러나 兩司에서는 그 程度의 理由로 榜에서 이름을 削除하는 것은 穩當치 못하다고 反對하여 그해 여름이 다 지나도록 放榜하지 않고 있다가 가을에야 비로소 그대로 發表하도록 允許하였다. 바로 이 事實이 <汚世不赴學>한 石洲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石洲는 叔英의 이름을 榜에서 빼리라는 소문을 듣자 分格하여 곧 다음과 같은 詩를 지었다.

宮柳青青鶯亂飛 滿城冠蓋媚春暉 朝家共賀昇平樂 誰言危遣出布衣<sup>(19)</sup>

이 詩에서 ‘冠蓋’는 벼슬아치를 가리키고 ‘宮柳’는 光海의 外戚인 諸柳(柳希奮 등)를 가리키며 ‘布衣’는 任叔英을 가리키며 叔英의 勇敢性을 넉넉히 추켜 세운 諷刺詩이다. 光海가 이 詩를 發見한 것은 黃赫의 文書 가운데서였다고 한다. 光海는 이 詩를 보자 곧 權輿을 잡으라고 命하여 刑罰을 내리고 北方으로 귀양가게 하였다. 當時 左議政이던 李恒福은 平素에 輿의 체주를 아깝게 여기던 터라 光海의 刑竄削方의 處事가 옳지 않다고 울면서 極諫하였다.

浮輕士子 一時妄作 何可至於刑杖 此事非于逆獄而 若施重刑 以至於死 豈非有累於聖德 蓋此詩 非無心之所作 雖有指意處亦何至於重刑乎<sup>(20)</sup>

浮輕한 선비의 一時妄作으로 어찌 刑杖에 이르며, 逆獄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重刑으로 죽음에 이르면 聖德에 累가 된다는 懇切한 忠言이다. 白沙 李恒福이 石洲를 얼마나 아꼈는가는 白沙의 證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吾輩在位 不能活一權輿 殺士之責 烏得免乎<sup>(21)</sup>

漢陰 李德馨도 같은 意見이었다.

國家不宜以詩案殺士<sup>(22)</sup>

이 事實은 光海君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19) 權輿의 宮柳詩<궁비들 청청한데 퍼뜩새 날아들고 성가득한 冠蓋가 봄볕에 상긋거리네. 조정에선 昇平樂을 하례하는데 누가 시켜 危言이 布衣에서 나오게 하였나>

20) 李肯翊 「燃藜室記述」卷19 光海君條

21) 「權石洲 墓誌銘」인용.

22) 「南溪集」燃藜室記述 再引.

李德馨 李恒福 崔有源 등이 再三 赦하여 줄 것을 간청했으나 光海는 끝내 듣지 않고 褫한 매질을 하여 獄에 가두게 했다. 그날밤 大臣 臺諫들의 말을 조차 刑罰을 減하여 慶源府로 遠竄하였더니 韃이 平素에 酷刑을 당하였으므로 國門을 昇出하자 杖毒이 上衝하여 慘酷하게 죽고 말았다<sup>23)</sup>

그러나 日月錄의 기록에는 石洲가 遠竄令을 받고 東大門 밖에 나와 어떤 酒幕에 들러 壁上에 걸린 詩를 보니 自己의 죽음을 豫言한 讖詩였는데 그 詩를 읽고 그는 果然 配所에도 미처 가기 전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sup>24)</sup>

石洲墓誌에는 宮柳詩를 誣獄이 일어난 뒤에 趙守倫의 집에서 얻었으며 芝峰의 말을 빌어, 韃이 酒幕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갑자기 죽었으므로 그집의 門扉를 尸床으로 하여 장사지었는데 그 門扉 위에 詩句가 써어 있었으며 그때가 마침 3월인데 그집의 복사꽃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趙守倫에 대한 기록은 光海君日記에 자세히 적혀 있다. 여기서는 ‘宮柳’가 직접 中宮을 指稱한다고 하고 趙國弼이 戚里人이었는데 그가 權韃에게 말하기를, 光海가 宮柳詩 이야기를 듣고 大怒하여 너에게 早晚間 大罪를 내릴 터이니 급히 一辨疏文을 지으면 내가 들어 두마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때 韃는 笑而不答하였는데, 이때 王이 趙守倫 文書 중에서 이 宮柳詩를 보고 다그치자 作者가 韃임이 드러났다. 韃를 問招하자 그는 任叔英의 事實을 이야기하고 朝廷에 直言하는 臣下가 없으므로 이 詩를 지어 諸公들을 諷諭했다고 勇敢하게 自白하여 드디어 遠竄刑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sup>25)</sup>

韃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의 先天的 氣質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죽음을 며칠 앞두고 自己가 지은 詩稿들을 모두 챙겨 작은 보자기에 싸서는 沈器遠에게 맡기면서 絶句 한 首를 써 주었다고 한다. <sup>26)</sup> 諸句를 즐겨 지으며 너무 떠들썩하게 살아온 生涯를 反省하는 詩였는데 이 詩를 쓴 지 3日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것을 보면 諸句를 喜作하여 萬口喧을 받은 그의 氣質은 自身도 고칠 수 없는 先天的인 것이었던 모양이다.

韃이 하루는 族人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그집에 온 柳希奮을 만났다. 그집 主人은 깜짝 놀라며 공손히 禮儀를 표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希奮을 꾸짖었다.

汝是柳希奮耶 汝享富貴 而國事至此 國亡則汝家亦亡 斧鉞獨不到汝項乎<sup>(27)</sup>

當대의 으뜸가는 勢道家 文昌公 希奮에게 이렇듯 마주 덤빌 爲人이었으니 그의 作品을 통한 諷刺는 더 論할 餘地가 없다.

23) 「光海君日記」第 52卷 4年 壬子 4月條 요약.

24) 讖詩 「勸君更進一盃酒 酒不到劉伶墳上土 三月將盡四月來 桃花亂落如紅雨」

25) 「光海君日記」上揭條 再引 요약.

26) 「平生喜作俳諧句 惹起人間萬口喧 從此括囊聊卒歲 何來宣聖欲無言」

27) 「燃藜室記述」卷19 石洲條 公私見聞 所引.



이러한 氣質은 아마도 家門의 傳統性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바로 위의 兄인 翰은 西湖가에 살았는데 하루는 執權黨인 大北派의 實力者들이 西湖에서 船遊를 하다가 翰에게 함께 놀기를 請하였다. 翰은 欣快히 合席하여 놀면서 船上의 飲食을 집어 童奴에게 주며 <此奴年幼識迷而能知孝養其母 吾以是愛之耳>라 對答하였는데 이를 역겹게 들은 大北輩들은 그때 西宮에 幽閉한 仁穆大妃를 諷刺한 말인 줄 알고 翰을 殺害하려 하였는데 <이미 輿을 죽였는데 兄까지 죽이면 남의 耳目이 두렵다>고 하여 生還되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義를 지키려 한 기질이 家系에도 질게 깔려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다.<sup>28)</sup>

## 5. 石洲와 그의 小說

石洲 權輿은 龍大한 詩文을 남겼으리라 생각되나 光海詩識 이후 모두 散逸되어버리고 石洲集으로 刊行을 보게 된 것은 仁祖10年(1632年) 그의 門人 洪汝時(諱實)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許筠의 글에서 보면

沈生拾其傳誦者數百篇 辯曰石洲少稿<sup>29)</sup>

라고 하여 沈生이 石洲少稿를 이미 만든 바 있는데 이는 李廷龜의 글

沈尙書居平遇余輒言 石洲權汝章未嘗不 相對一涕 辛未冬 沈出按湖南節 將行過余曰 石洲骨已朽矣 唯其不朽之大業 尙有若干篇 其又可朽耶 已屬完山尹洪汝時謀入梓<sup>30)</sup>

가운데서 沈居平이 月沙에게, 石洲는 죽었지만 그 不朽의 大業은 남아 있으며 이미 完山尹인 洪汝時(實)가 上梓하였다고 하는 말과 一致한다. 洪實는 上梓에 앞서 李植에게 刪定을 구하였는데 植은 이 일에 論及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石洲先生集今已抄定付標 竝新舊本及家藏亂藁 付其胤子仇云 所謂新本則○○○所撰 舊本出東岳叔父家 未知誰選 舊本七百餘首 似雜而間有譏刺已甚者 新本四百餘首 太略而闕於文 今據家藏亂藁 參以二家本 定爲此集 其竄難取捨處 與二三宗匠 商確乃定兼抄雜文以附其後而後此選始完<sup>31)</sup>

여기서 보면 石洲集은 원래의 家藏亂藁를 근거로 舊本 七百餘首와 新本 四百餘首를 參考하여 엮어졌는데 原集은 8卷 外集 1卷이며 張維의 石洲集序(1622年)를 덧붙였다. 張維의 序에 보면 <完山洪實公門下士 始錄公遺稿>라고 있어 洪實가 石洲의 門下生임을 알 수 있고, 別集 2卷은 石洲集 重刊時 宋時烈이 校正하여 李東稷이 刊行한 바로 尤菴의 跋文(1674年)에는

28) 翰에 對한 論述은 이미 (1) 「家系」으로 본 石洲條에서 概論한 바 있다.

29) 許筠「樞所覆瓿藁」卷4 文部1 石洲小稿序

30) 李廷龜「石洲集」序文(崇禎壬申孟春) 인용.

31) 李植「奉寄洪府尹實書」(崇禎辛未) 인용.

今湖南察使李公東稷 將取以入梓 以爲別集 先生曾孫燧以李公意 來以示余云云<sup>32)</sup>

라고 하여 湖南察使 李東稷이 刊行하려하여 石洲의 曾孫 燧가 東稷의 뜻을 尤庵에게 전했다  
고 하였다. 한편 石洲集에 附錄된 東稷의 跋文에서

石洲集之始入梓也 士直實籍力於洪豐寧實而常以鈔選之不廣爲歎 今余忝按是道 板本已剝缺矣 遂有  
重刊之役而因增以別集<sup>33)</sup>

이라 한 것을 보면 石洲集을 入梓할제 士直(仇)의 不滿足하던 바를 안 東稷의 애쓰이 역연하  
다. 이때엔 松庵遺稿가 附錄되었다. <sup>34)</sup>

石洲集의 詩文가운데는 五山 車天輅 牛溪 成渾 松江 鄭澈 月沙 李廷龜 林子愼 重峯 趙憲 등  
數十人の 人物名이 보여 交遊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車五山과의 詩 하나만 보더라도  
〈戲車秘書天輅〉 〈新安途中遇雪次車校理韻〉 〈次車五山聞使相日夜登統軍亭韻〉 〈次五山偶吟  
韻〉 〈次韻車五山詩〉 〈寄車五山〉 〈述懷示五山三首〉 등 10餘首나 되어 交遊하던 文人들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注目되는 것은 石洲 鞞의 小說作品이다. 가령 石洲集 卷7에 보면 李恒  
福의 柳淵傳을 읽고서

一回披讀一傷神 冤屈從知久乃伸 得附青雲眞幸耳 世間何限不平人<sup>35)</sup>

이라 읊은 詩가 보여 小說文藝에의 關心을 보여주고 있으며 邵子와 老翁의 對話體로 술을 擬  
人化한 酒肆文人傳, 계를 擬人化한 短篇 郭索傳이 있으며 石洲集에는 收錄되어 있지 않으나  
艷情類인 周生傳과 章敬天傳 등은 問題作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sup>36)</sup>

### (1) 石洲가 만난 周生

그중 周生傳은 小說史上 金鰲新話와 洪吉童傳의 사이에서 교량적 役割을 맡고 있는 작품이  
다. 더우기 그 作品의 動機가 假托에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하다. 換言하면 周生傳은 作者  
가 周生이란 作品의 主人公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敘述한 形式으로 되어 있다. 周生은  
壬辰亂 때 援兵都督으로 朝鮮에 온 李如松將軍의 遊擊將이던 某人の 部下로 書記의 所任을 맡

32) 宋時烈「石洲別集跋」(關逢攝提格 甲寅) 인용.

33) 李東植「松庵遺稿跋」(石洲集 附錄) 인용.

34) 多田正知「朝鮮仁祖朝文學의 一考察」李東岳과 權石洲條(朝鮮, 1932年 7月) 참조. 筆者가 參考한 石洲集은 高大  
圖書館藏本으로 天地人 3冊으로 詩 六百餘首 및 雜文들로 序엔 月沙 谿谷 澤堂의 글이 있고 跋文은 尤庵이 썼다.

35) 「題柳淵傳後」(李完平元翼屬李鰲城恒福作傳入報)

36) 周生傳의 作者를 權鞞로 보는데는 相當한 問題點이 있다. 그러나 李明善의 朝鮮文學史「年表」이후 文彙奎 등의  
研究도 肯定的이며 章敬天傳의 內容이 周生傳과 類似한 艷情類인 것으로도 同一人の 作品이라 認定된다. 石洲集  
에 漏落된 것은 醇正學派의 眼目에는 戲文으로 測定에서 除外된은 오히려 常識에 屬한다.

고 松京에와 머물고 있을 적에 權輿이 그를 찾아 만나게 된다.

余適以事往于松京 遇生於館驛之中 言語不同 以書通情 生以余解文 待之甚厚 余詢其致病之由 愀然不答 是日有雨 仍與生張燈夜話<sup>37)</sup>

작자와 周生이 만난 해를 癸巳年이라 하였으니 西紀로는 1593年 즉 明神宗 萬曆 21年 宣祖 26年이 되는 셈이다. 이해 李如松의 遊擊將은 倭敵을 大破하고 餘勢를 慶尙道로 몰아 내려갈 무렵인데 周生은 故鄕에 두고온 仙花를 생각하던 끝에 病이 되어 南下하지 못하고 홀로 松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다. 筆者가 무슨 일로 開城을 찾아갔는지는 分明하지 않으나, 어쨌든 周生과 필자가 館驛에서 만나 言語가 不通하여 글을 써 서로의 意思를 疎通하였는데 등불을 밝혀 놓고 밤이 늦도록 談論하였다는 것이다.

生以踏沙行一闕示余 余再三諷詠其詞不置因探詞中情事 生於是不敢諱 從頭至尾 細說如右 因曰 幸勿爲外人道也 余已艷其詩詞 歎奇遇而愴佳期 退而援筆述之云爾<sup>38)</sup>

필자가 周生의 병난 사연을 探問하였으나 對答을 얻지 못하던 중 그가 지은 <踏沙行>을 諷詠하고 詞中の 情事를 묻자 周生이 自初至終을 說話하므로 물러나 그 詩詞를 곱게 여기고 奇遇를 歎하고 佳期를 슬프게 여겨 鬻을 들고 그 사연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假托의 手法은 醇正學派로부터 稗官文學者란 賤待를 免하기 위해서나 또는 現實의 강한 諷刺性을 糊塗하기 위한 方便으로 많이 씌어졌다.

作品的 創作 時期나 그 차지하는 比重으로 보아 雲英傳이 周生傳과 比肩할만한데 假托의 構成法마저 恰似하다. 雲英傳은 柳泳이 萬曆 辛丑 春 3월에 安平太君의 故宮 壽聖宮에 들어가 술에 滿醉하여 꿈속에서 죽은 金進士와 雲英의 靈魂을 만나 그들의 生前의 怨恨을 듣는 형식으로 記述하고 있다. 作品的 終結法도 周生傳의 <幸勿爲外人道也>의 手法은 雲英傳의 <柳泳亦醉 暫睡少焉 山鳥一聲 覺而視之 雲烟滿地 曉色蒼茫 四顧無人 只有金生所記册子而已>의 手法과 恰似하다.

한편 趙緯韓은 崔陟傳을 썼는데 이 작품 역시 作者가 作品 속의 主人公인 崔陟의 來訪을 받아 그의 歷程을 듣고 記述하는 假托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

余流寓南原之周浦 陟時來訪余 道其事如此 請記其顛末 無使湮沒 不獲已略舉其概<sup>39)</sup>

趙緯韓이 南原 周浦에서 流寓하고 있을 때 이 作品的 主人公인 崔陟이 作者를 來訪하고 自己의 崎嶇한 歷程을 이야기하며 湮沒되지 않도록 그 顛末을 기록해 달라는 請托을 받고 大綱

37) 「周生傳」 末尾 所引.

38) 「上揭書」 再引.

39) 趙緯韓 「崔陟傳」 結尾 所引

을 記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假托의 方法은 燕岩 朴趾源의 諷刺作品 가운데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으니, 저 北郭先生과 東里子의 艷問을 諷刺해 쓴 『虎叱』도 熱河日記에서 보면 中國의 玉田縣 沈由朋의 집 벽에 걸린 格子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假托하였다.

壁上懸一篇奇文 驚紙細書爲格子塗之 橫竟一壁筆又精工 就壁一讀可謂絕世奇文 余因還座 問壁上所揭誰人所作 主人曰不知誰人所作也<sup>40)</sup>

沈由朋은 다시 責任 轉嫁를 위해 薊州市場에서 收買한 것이라 하고 燕岩과 鄭進士가 베껴 쓰면서 그 글의 必要性을 묻는 沈由朋의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으려 한다고 하고, 이 글을 읽으면 입술의 밥알이 벌처럼 날아가고 갓끈도 썩은 새끼줄처럼 끊길 것이라고 한껏 諧謔하고 있다.

이 假托法은 이미 唐代의 傳奇小說類에서 그 根源을 찾을 수가 있으니, 예컨대 元稹의 會眞記(鶯鶯傳) 結尾의

貞元世 九月 執事李公垂 宿於予靖安里第 語及 於是公垂卓然稱異 遂爲鶯鶯歌以傳之<sup>41)</sup>

에서 執事 李公垂가 元稹의 집에 와서 傳한 이야기를 듣고 鶯鶯이 神祕로운 女人이라 생각되어 會眞記를 지어 世上에 傳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 (2) 周生傳의 背景

周生傳은 唐代 傳奇小說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다.

郎君不見李益霍小玉之事乎 郎君若不我遐棄 願立盟辭<sup>42)</sup>

俳桃가 周生에게 버리지 않겠다는 盟辭의 言約을 求하는 때문이다. 李益과 霍小玉은 唐代의 代表的 傳奇小說로 蔣防이 지은 霍小玉傳의 主人公들이다. 한편

是夜賦高唐 二人相得之好 雖金生之於翠翠 魏郎之於娉娉未之喻也<sup>43)</sup>

의 周生과 俳桃가 서로 만나 즐기는 대목에서 金生과 翠翠는 明 瞿佑가 지은 剪燈新話 翠翠傳에 나오는 主人公들이며 魏郎과 娉娉은 明 李昌祺(禎)가 撰한 剪燈餘話 賈雲華還魂之記에 나오는 主人公들이다. 또 仙花가 周生을 유혹하는 대목

40) 朴趾源 「虎叱」(熱河日記 關內程史 28日 甲辰條) 인용.

41) 元稹 「會眞記」(鶯鶯傳) 引文.

42) 「周生傳」 初頭 俳桃의 盟辭條 引文

43) 「上揭書」 初頭, 周生과 俳桃의 相歡條

生狼狽無所逃避 伏叢篁之下 曳履者 低聲語曰 周生無恐 鶯鶯在此 生方知爲仙花所誤 乃起抱腰<sup>44)</sup>

에서의 鶯鶯은 저 元稹의 會眞記에서 보는 崔鶯鶯으로 張生의 戀人이다.

叙上한 作品 중에서도 構成面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作品은 會眞記가 아닌가 한다. 張生은 普救寺의 인연으로 鄭女人에게서 鶯鶯을 紹介받는다. 張生은 下女 紅娘을 紹介로 會眞詩를 지어 鶯鶯에 接近한다. 張生과 鶯鶯은 險墻의 雲雨之樂을 즐기나 張生이 不遇하여 科擧에 落榜하면서 鶯鶯도 다른 곳으로 出嫁하고 張生도 만 아내를 맞는다. 이후 張生이 鶯鶯을 다시 만나려 하지만 鶯鶯은 永遠히 그에게서 떠나가고 만다.

會眞記에서 張生이 自身の 不運으로 사랑하는 鶯鶯과 永遠히 離別하는 結構法은 마치 俳桃를 戀慕하던 周生이 그녀를 여의고 다시 仙花에게로 사랑을 옮겼으나 不意의 從軍으로 永遠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結構法과 恰似하다. 李益이 霍小玉과 사랑을 맺었다가 死別하고 盧女人과도 離別하고 다시 營十一娘에게로 사랑을 옮겨가는 돈 주안(Don Juan)적인 愛情 遍歷이 비극을 낳는 霍小玉傳은 周生과 俳桃와 仙花에 얽힌 비극에 比하면 한층 더 複合的이다.

周生傳의 構成上의 한 特徵은 詩와 詞의 빈번한 插入에 있다. <錢塘에서의 口占一絕> <俳桃에게 전한 贈詩> <俳桃의 壁間詩> <俳桃의 蝶戀花詞> <周生의 答詞> <周生의 古風詩> <俳桃의 戀詞> <蘇子瞻의 賀新郎詞> <仙花의 早夏間曉鶯詩> <仙花의 眼兒眉詞> <周生의 長相思詞> <周生의 踏沙行詞> 등 作品 構成이 오히려 詩·詞의 韻文이 主가 되고 散文의 說明은 副次的인 느낌이다.

隻影無馮 離懷難叱 歸鴻暗暗連江樹 旅窓殘燭已驚心 可堪更聽黃昏雨 閨苑雲迷 瀛洲海阻 玉樓珠箔今何許 孤踪願作水上萍 一夜流向吳江去<sup>45)</sup>

이 詞 속에서 作者는 周生의 情事를 探問할 수 있었고 이 詞가 原因이 되어 周生傳이 記述된 것이다. 이 詞文學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麗代였지만 創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東人詩話에는,

樂府句句字字皆協音律 古之能詩者尙難之 吾東方語音與中國不同 李相國 李大諫 猊山 牧隱 皆以 雄文大手 未嘗措手 唯益齋備述 衆體法度森嚴 先生學中原師友淵源 必有所得者

라 하여, 樂府는 字句마다 音律을 맞추어야 하므로 高麗의 相國 李奎報 大諫 李仁老 猊山 崔瀛 牧隱 李穡같은 大家도 손대지 못하였으나 益齋 李齊賢만이 中原의 師友에게서 그 淵源을 배워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文章의 構成面에선 金鰲新話나 雲英傳에 同軌가 되며, 또 한 詩詞 爲主로 周生傳을 엮은 作者의 文章力에 경탄을 禁할 수 없다.

44) 「上揭書」初頭, 周生과 仙花의 相歡條

45) 「上揭書」終尾, 周生의 踏沙行 一闕

한편 周生과 仙花가 서로 信物을 交換하는 挿入 플롯에서 花粧用 거울을 꺼내어 두쪽으로 갈라 각각 하나씩을 간직하였다가 華燭之典날 밤에 하나로 합하자 하고 또 비단부채(紈扇)를 信物로 주며 乘鸞의 妻를 생각하여 秋風之怨을 끼치지 말고 姮娥의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明月之輝를 생각하라는 再會의 約束은 그 緣源이 펴 오래다. 春香傳에도 玉指環 明鏡交換說話가 나오는데 이는 이미 西廂記에도 보이며 그밖에 「荊釵記」의 〈荊釵〉 「對玉梳」의 〈玉梳〉 「玉珠記」의 〈玉珠〉 「明珠記」의 〈明珠〉 「玉簪記」의 〈玉簪〉등 수없이 많으며 우리 나라에도 曹偉의 「合玉環逢妻得胤」 洪暹의 「脫襜網玉環踐約」(東野彙輯)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sup>46)</sup> 그러나 이 挿入 플롯트가 우리 小說에서 本格的으로 나타나기는 時代的으로 보아 周生傳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 (3) 周生傳의 悲劇性

周生傳은 그 作品이 지닌 悲劇的 性格에 또한 問題가 있다. 니체는 일찌기 悲劇이 디오니소스의인 苦惱의 世界를 아폴로의인 藝術的 觀照에 의해 忍耐하는 것이라 하고 그리스인들의 悲劇 誕生의 契機는 그리스인들의 悲觀主義를 克服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sup>47)</sup> 원래 〈비극〉의 그리스語 Tragoidia는 Tragos(山羊)와 ode(노래)의 複合語로 디오니소스祝祭 때 부른 合唱 Dithyrambos에서 由來된 말인데, 汎稱되는 비극은 主人公의 意志와 行動이 어떤 不可避한 運命 性格 社會的 條件 등으로 말미암아 葛藤과 對立이 그 過程에서 悲慘하게 沒落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환기하는 事件의 극적 묘사로서 一種의 苦痛感이 따르나, 그러면서도 全體를 貫通하는 보편적 精神으로 마음 속에 깊은 震撼과 內面的 昂揚을 주어 카타르시스의 效果를 發揮한다고 하고 〈우리보다 善한 人間〉이라야 비극의 主人公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sup>48)</sup> 필자는 이미 「雲英傳研究」(註2)를 통하여 그 비극적 樣相을 抽出해 본 바 있으며 우리의 代表的 古典作品 春香傳, 沈清傳 등도 李朝儒敎社會의 構造의 善終을 削去하면 典型的 悲劇이 됨을 例示한 바 있다.

周生傳도 時代的 背景과 作者意識을 勘案하면 悲劇의 原型을 보는 느낌이다. 이 작품 속에서 作者는 아마도 現實에 適應하지 못하고 짧은 一生을 不遇하게 살다간 自身의 運命을 딱딱한 醇正文을 피하여 浪漫的 周生傳의 불우한 主人公으로 再生시킨 것이라 여겨진다. 主人公 周生은 연달아 科擧試驗에서 몇 번이나 落第한 不遇한 人物이다. 그러나 自身이 생각할 때엔 결코 無能하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現實이 그를 容納하지 않았을 뿐이다. 岳陽城에서 만난 羅生도 周生과 같은 人物이다. 술에 滿醉되어 벌이는 錢塘에서부터의 이야기가 夢中說

46) 金東旭 「春香傳 研究」 중 春香傳 根源說話考 참고.

47) 니체 「悲劇의 誕生」 참고.

48) 아리스토텔레스 「詩學」(孫明鉉역) 참고.

話임직도 하다. 周生은 俳桃를 만난다. 원래 俳桃의 先世는 豪族이었으나 沒落한 후 俳桃는 지금 妓籍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主人公은 愛情的인 結合이 아니라 비극을 함께 안고 기다리는 待期的인 運命的 所有者들이다. 盧丞相宅 역시 丞相이 죽고 沒落한 家門, 周生이 仙花에게로 사랑을 옮기자 俳桃의 죽음을 가져옴도 당연하지만 俳桃마저 잃고 錢塘을 떠나는 周生에게 또 仙花와의 새로운 비극이 待期되어 있다.

이 작품은 周生이 편벽한 땅 湖州에서 仙花를 그리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出征하게 되는 좀더 現實的인 悲劇임에 그 特質이 있다.<sup>49)</sup>

필자는 이미 雲英傳과 金鰲新話 遺篇들을 들어 相互 關聯되는 비극적 本質을 抽出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 다시 周生傳과 雲英傳의 비극적 相關性에 對하여 言及하려 한다. 운영전은 封建社會의 두터운 담장을 뛰어 넘으려던 雲英의 비극과 政治的으로 失意당한 安平大君의 비극 戰亂의 폐허가 가져다준 戰爭悲劇의 綜合產物임은 이미 論한 바 있다.<sup>50)</sup> 周生傳의 비극도 한마디로 말하면 周生의 運命的 비극 俳桃의 죽음이 빚어낸 비극 그리고 戰亂이 빚어낸 仙花와의 離別이 코러스된 비극의 產物이라 하겠다. <在太學數年 連舉不第>의 周生은 <望郎君 他日立身 早登要路 拔妾於妓籍之中 使不忝先人之名 則賤妾之願畢矣>의 俳桃와는 처음부터 그 길이 다르다. 周生은 國榮의 教育을 핑계로 다시 仙花를 만나게 되지만, 雲英이 金進士를 만나면서 이미 비극의 씨를 내포하였던 것처럼 周生도 仙花를 만나면서 이미 비극을 배태하였던 것이다. 雲英은 現實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金進士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루고 戰亂으로 폐허가 된 故宮에서 懷古의 사랑에 陶醉된다. 金鰲新話의 李生窺牆傳에서 李生 역시 戰亂이 끝난 황량한 廢墟에서 崔娘의 영혼과 相面한다. 周生傳 역시 主人公 周生의 우울이 作品的 밑바닥에 깔려 있다. 周生과 仙花의 비극을 戰亂으로 부각시킨 것은 暫新味가 있다. 愛情的의 三角關係를 비극적 결구법으로 處理한 作者의 意識과 自身の 運命적 비극을 낭만적 小說 속에서 카타르시스할 줄 안 작자의 才能 앞에 再三 感嘆을 不禁하게 한다. 周生傳은 결코 비극을 낳지 못한 通俗作品이 아니다. 民衆의 所望的 思考의 울타리를 勇敢하게 뛰어넘은 위대한 비극이다.

## 6. 結 語

지금까지 筆者는 한 偉大한 作家로서의 權輿의 生涯를 整理하기 위한 작업과 小說家로서의 그의 位置를 再定立하기 위한 작업을 並行해 왔다.

먼저 作家로서의 權輿의 生涯를 세 側面에서 觀察하였다. 첫째 家系上으로 보아 그는 先天

49) 拙稿「李朝小說의 悲劇의 再構」(崇田大新聞 220號 論壇) 참고.

50) 拙稿「雲英傳 研究」(前掲書) 및 「宮中文學의 悲劇性」(民族文化研究 5輯) 참고.

의 文才를 이어 받았는데 權近, 權祺, 權擘으로 이어지는 家系가 그를 증명하였다. 특히 그는 父親 擘(習齋)의 영향이 컸는데 盧守愼 鄭惟吉 등이 宣祖에 추천한 경과를 보더라도 文章 뿐 아니라 精神的 影響을 더욱 많이 이어 받고 있다. 그들 七兄弟 중에도 韜는 翰과 가장 性格이 通하였던 같고 특히 松江 鄭澈의 生涯에서 큰 衝擊을 받고 그는 黨爭을 멀리하고 벼슬을 버리고 現實 諷刺와 浪漫的 文筆生活로 沒入하였다.

둘째 氣質面에서 그는 張維의 證言처럼 豪宕不羈하였다. 그는 現實的 不遇를 作品 속에서 昇華시킬 줄 알았고 旬五志나 李廷龜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恒常 自身을 숨기고 분수를 지킬 줄 알며 黨論을 嫌惡하고 義를 위해 勇敢한 선비였다.

셋째 그의 氣質은 宮柳詩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서슬이 퍼런 光海亂政에 勇敢한 抵抗을 試圖한 反骨人이었다. 그의 목숨을 救하기 위한 李恒福, 李德馨 등의 正성이 그의 人稟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國弼의 救命 要請에 笑而不答하던 韜, 光海의 問招엔 朝廷에 直臣이 없어 諷諭詩를 지었다고 던벼들던 韜, 끝내 杖斃된 그의 죽음이 무엇보다 그를 잘 證言하고 있다. 白衣의 醉客이 되어 勢道家 柳希奮을 〈斧鉞獨不到汝項乎〉라 꾸짖던 韜, 廢母를 諷刺하다 목숨을 잃을뻔한 翰……모두가 그 家系에 질게 흐르는 義熱의 血統을 말해 준다.

石洲가 偉大한 詩人이었음은 이미 證明된 바이지만 필자는 小說家로서의 石洲의 地位를 더욱 기린다. 그는 白沙의 柳淵傳에 이미 깊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 石洲集에는 酒肆丈人傳 郭索傳 二篇의 傑作 擬人小說이 남아 있다. 그의 周生傳 章敬天傳은 艷情類인 바 특히 그의 周生傳은 첫째 時代的으로 金鰲新話와 洪吉童傳을 잇는 橋樑的 作品이요 둘째 創作法에서 傳記的 假托法을 쓴 最初의 作品이란 점, 셋째 그 背景을 이미 唐代 傳奇小說에 두고 새로운 構成法을 創案한 初期의 作品이라는 점, 넷째 플롯面에서 金鰲新話와 雲英傳과 周生傳이 그 軌를 같이하는 悲劇作品이라는 점에서 높이 評價된다. 특히 假托法과 詩·詞가 주가 되고 散文이 부가 되는 文體, 玉指環 面鏡說話 등의 插入플롯 主人公의 不遇와 죽음과 離別등, 古代小說의 勸懲思想을 벗어나 獨자의 카타르시스를 노린 비극적 가치성은 높게 살만하다.

더우기 周生傳은 金오신화나 雲英傳에서 볼 수 없는 現實的 悲劇美를 지니고 있으며 이 작품이야말로 石洲 자신의 生涯를 한편 浪漫으로 물아간 所重한 文學史의 遺産으로 그 價値性이 더욱 높게 評價되어야겠다.



# A Study of the Works of Kwon P'il

So, Jae-yung

## Summary

Kwon P'il was a famous writer who lived during the reigns of *King Sonjo* (宣祖) and the Kwanghae-Kun (光海君). He is often remembered as a prolific writer who produced more than a thousand poems. Howeve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his contributions as a novelist. He left us, not only representative love novels such as *Chusaeng-chon* (周生傳) and *Changgyongch'on-chon* (章敬天傳), but also important works, *Chusa Changin-chon* (酒肆丈人傳) and *Kwaksae-chon* (郭索傳), which display a brilliant use of metaphoric language. Since these works, written in Chinese, have not been evaluated, I have chosen them as the object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is paper can be sub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Kwon P'il's own family circumstances. He was the sixth son of Kwon Byok (權擧), in a family of seven sons and daughters; at an early age he was adopted by his uncle Kwon Kyong (權擎). From his childhood he was heavily influenced, both spiritually and intellectually, by his father, grandfather, and great-grandfather. Consistent with his upright character, he could not stomach the political irrationality and irrelevance of his day, and so absorbed himself in using the pen to produce resistant and satirical works in uncompromising fashion.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underscores the extraordinary ability of Kwon P'il as a writer. When the Japanese invasion occurred (*imjin*, 1592) and the country was gripped by confusion, he courageously criticized the flight of King Sonjo to Uiju (義州), in a memorial to the throne. Seeing that his teacher, Chong Ch'ol (鄭澈), suffered unjustly as a result of the devices of the opposition party, he resolved to devote himself to the cause of uprightness. These personal experiences help one to understand his disposition throughout life.

Thirdly, Kwon P'il wrote a satirical poem criticizing the maladministration of the Kwanghae-Kun. Unfortunately this poem led to his death. The *Kungryu-shi* (宮柳詩), saturated with criticism of government leadership, raised the ire of the throne. The author

was soon arrested, ordered into exile, and on the way died as a result of excessive flogging.

Fourth,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ovel we must assign great significance to Kwon P'il's *Chusaeng-chon* as a bridge between the *Kumo Sinhwa*(金鰲新話) and the *Hong Kiltong-chon*(洪吉童傳). This novel is written in such a style that the writer place himself in the position of having met the hero. An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is work suggests that the author was influenced by such Chinese works as the *Aeng Aeng-chon*(鶯鶯傳) and the *Kwak Sook-chon*(郭小玉傳), written in biographical style. The plot in this context indicates the manner in which the novel became the standard for the love story. The triangular love affair involving Chusaeng(周生), Baedo(俳桃), and Sonhwa(仙花) reminds us of the tragic tale, *Unyong-chon*(雲英傳), and qualifies the writer for a position of prominence as a tragedian.

In conclusion, Kwon P'il was an eminent novelist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ovel. He was also a writer who placed more value on his works than on his own life, maintaining a strong will against social disorder. The hero of the *Chusaeng-chon* is none other than the author himself, Kwon P'il. He may be praised as a writer who succeeded in sublimating a tragic beauty in his novel.